

51 두 아들의 비유

Chapter

마 21:23~32

찬송가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오늘 배울



말씀

1.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와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2. 하나님 앞에 너무 늦어 회개할 수 없는 죄란 결코 없음을 압니다.

마음 열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Yes'나 'No'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일을 선택할 때 두 번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결정은 '입'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결정은 '몸'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항상 입으로는 'Yes'인데 몸은 'No'인 친구가 있죠.
반면에 어떤 친구는 입으로도 'Yes', 몸으로도 'Yes'인 친구도 있지요.

여러분은 입과 몸이 함께 움직이시나요?



말씀을 이해하기

공과말씀정리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서 끝까지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 종교인들의 불의와 위선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맏아들’은 ‘유대의 종교가들’ 혹은 ‘유대인’을,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죄인들’ 혹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맏아들은 말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불순종합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기회와 특권을 부여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곧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는 비록 죄가 많은 세리와 창기들이었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유대의 종교가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위선과 형식에 매여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를 회개한다면 세리와 창기 같은 큰 죄인들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먼저’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예수님을 배척하는 위선적인 유대 종교인들조차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랑의 메시지가기도 합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 너무 늦어서 ‘회개할 수 없는 죄’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약 1:22)

**But b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deceiving yourselves
(Jas 1:22).**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롬 3:21~24)

(눅 23:39~43)

(벧후 2:20~22)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공의의 심판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9절은 그때에 예수님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기록해 봅시다.
2.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배척한 사람들 중에는 죄인들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주된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로마서 10장 1~3절을 읽고 답해 봅시다.
3. 2번과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도리어 그렇지 못한 종교인들에게 비난과 오해를 받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갈라디아서 4장 28~29절을 읽고 요약해 봅시다.
4. 습관적으로 짓는 죄이기에 더 이상 주님께 고백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죄가 있나요? 혹은 이제는 고백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죄가 있나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매개체



제 혀에 세균이 보이세요?
세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그냥은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이란 매개체를 통해 보면 아주 작은 세균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멀리 있는 별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망원경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멀리 있는 별들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매개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더 확실한 매개체는 바로 성경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이름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사 34:16)

아직 늦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서 사탕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퇴직 이후 그는 노인정에 나가서 잡담을 하거나 체스를 두는 일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체스 상대자가 도착하지 않아 멍하니 앉아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느니 그림이나 그리시지요?”

“내가 그림을? 나는 붓 잡을 줄도 모르는데...”

“그야 배우면 되지요.”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 난 이미 일흔이 넘었는 걸.”

“제가 보기엔 할아버지의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더 문제 같은데요.”

젊은이의 그런 핀잔은 곧 그 할아버지로 하여금 미술실을 찾게 했습니다. 붓을 잡은 손은 떨렸지만 그는 매일 거르지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바로 77세의 나이에 미술을 시작하여 평론가들에게 '미국의 샤갈'이라고 극찬을 받았던 '해리 리버맨'입니다. 그는 이후 많은 사람들의 격려속에서 구약 성경과 탈무드 및 유대 민족의 전통을 소재로 수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22번의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1983년 102세에 삶을 마치기까지 그림 그리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